

11. 과거시험

미국에서 관료로 출세하고 싶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할까? 어떤 종류의 시험 준비를 해야 할까? 대학은 어디를 나오는 것이 유리할까? 조선왕조(1392~1910)는 당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선진적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운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 시험 준비에 정열을 쏟았다. 조선은 유교사회였으므로, 시험 준비 내용은 유교의 경전과 한문 실력, 그리고 유교적 경제학(정치학)에 능통해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실력에 의한 관료제 사회였을까?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출세할 수 있었을까? 이 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한다.

조선사회에서 과거시험은 매우 중요하였다.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는 이미 고려 때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사회에서는 굳이 과거를 통과하지 않고도 벼슬길에 나아가고 승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서(lit. 'shadow privilege,' protection appointment) 제도인데, 이것은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자손은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사회에서는 이 음서의 특권이 매우 좁아졌으며, 또한 과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승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출세를 원한다면, 자기의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일단 과거에 붙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시험은 경쟁이 치열하였다. 우선 문과, 무과, 잡과, 생원진사시(사마시) 등이 있었는데, 각각 문반, 무반, 전문직 관리, 성균관 유생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들이었다. 문치주의를 채택하였던 조선사회에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과의 위상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문과 응시자는 우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생원진사시(초시), 즉 예선을 통과해야 했다. 이 예비 시험에 통과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본 시험(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회시를 통과하면 과거에 합격은 한 상태에서 임금 앞에서 다시 시험을 치러 순위만 정하는 '전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시를 통과했거나, 성균관 유생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반면에, 무과와 잡과는 그 위상이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합격자의 신분적 배경이 다양해지거나(무과), 비양반 계층(전문직 중인)이 독점(잡과)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일관되었다.

과거시험 종류를 막론하고, 본 시험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 예선 시험조차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겨우 붙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웬만한 양반들조차도 일생 동안 예선 시험조차 붙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칙으로만 본다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얻을 사람은 3년마다 시행되었던 식년시의 경우 문과 33명, 무과 28명, 잡과 48명,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보면, 문과 합격생은 도합 14,000여명 정도였다. 그렇지만 문과보다 격이 많이 떨어진 무과 합격생은 15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였고, 잡과 합격생은 12,000여 명, 생원진사시 합격생은 47,000여 명이었다. 조선시대 한국의 인구가 1392년 건국 당시에 최대한으로 잡아도 5백만 명을 넘지 못했고, 왕조가 망하던 1910년 당시에 2천만 명을 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조선왕조에서 관직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시험은 얼마나 공정하게 운용되었을까? 또한 과거시험 제도는 한국사회가 가문이나 배경보다는 개인의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우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 과거시험에 비하여 수시로 치러지는 특별 시험(별시)이 너무 많았다. 본래 과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불규칙하게 치르는 시험이 점차 많아져, 조선시대를 통틀어 이러한 특별 과거시험의 횟수가 정규 과거시험 횟수의 거의 네 배에 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TV나 라디오도 없었고, 전화나 인터넷도 없었으므로, 특별 과거가 시행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공고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 기간도 어떤 경우에는 불과 열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새 임금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과 같은 경사스러운 일로 인하여 치러지는 특별 과거시험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지만, 이조차도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특별 과거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권세 있는 가문 출신의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여, 결과적으로 과거를 독점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과거 합격을 몇몇 특정 집안 출신들이 독식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를테면, 과거시험 출제와 채점이 그다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력가 집안의 학생일수록 과거 준비가 용이하였고, 따라서 합격률이 높았다. 또한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과거이다 보니, 학생들은 유년기에서부터 수십년 동안 공부에만 전력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력이 필수적이었고, 그런 경제력을 갖춘 집안은 대개 양반 신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계층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예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으니, 인구의 상당수를 점한 노비(slaves)가 대표적인 그 좋은 예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였던 평민(commoners)의 경우에는, 비록 법적으로는 응시 자격이 있었으나, 합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 응시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였다. 즉 설사 응시하려고 할지라도, 그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예(martial art) 실기가 필기시험 못지않게 중요했던 무과를 제외하고는, 문과, 잡과, 생원진사시에 평민 출신이 합격한 사례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조선사회에서 운용된 과거시험 제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실력에 관계없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실력 중심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었지만, 그것이 기존의 기득권층(양반 및 전문직 중인)에게 독점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에 큰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14~19세기) 세계에서 국가의 공무원을 대대적인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갖추었던 나라는 한국과 중국 외에는 별로 없었다. 이는 국가의 통치제도 면으로 볼 때, 중국과 더불어 한국이 매우 앞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시험에 불기 위하여 무엇을 공부하였는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과거시험을 위하여 공부한 내용이,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무과와 잡과를 제외하면, 정작 국가의 경영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유교의 경전이나 한문을 구사하는 문학적 소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치에 관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관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표면적인 제도(하드웨어)로만 본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교과 내용(소프트웨어)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같은 시기 명나라, 청나라 통치하 중국의 과거제도는 정규 시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학생들은 비록 전화나 라디오가 없었을지라도 언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은 한국보다 훨씬 더 치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서 독점 현상을 보이는 가문은 없었고, 따라서 비교적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력으로 응시하여 붙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과거를 둘러싼 비리가 없지는 않았고 또 특정지역이나 가계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법제적으로나 운용 면에서는 조선보다는 공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응시 자격도 별다른 차별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의 과거시험 제도를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를 채택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2) 요즘도 교육열이 높기로는 한국의 부모들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역사적 배경에는 아마도 과거시험 제도의 오랜 경험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한국인 못지않게 학벌을 따지며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과거시험 제도를 한국보다 더 오래도록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제도가 없었던 유대인의 교육열과도 비교해 본다면 재미있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영어판 본문 말미에 소개한 과거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공자(Confucius)가 누군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2) 역시 영어판 본문 말미에 있는 ‘ 미국의 경제’ 에 대한 문제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12. 노비제도를 보는 유학자들의 태도

지금부터 250년 전, 그러니까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사회 전체 인구의 약 25%는 노비였다. ‘노비’란 본래 남자 종(노)과 여자 종(비)을 합쳐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노비가 서양에서 말하는 노예(slave)에 가까운지, 아니면 농노(農奴 serf)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오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쟁은 고등학교의 수준을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 상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 노비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인(仁 benevolence)과 덕(德 moral virtue)으로 대표되는 유교정치를 지향한 유학자들이 지배한 조선사회에서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비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조선의 엘리트 유학자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또한 무슨 논리로 노비제도를 합리화하였을까?

고려 전기만 해도 한국의 노비 인구는 아무리 최고로 잡아도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몽골제국의 간섭기인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에 걸쳐 노비 인구는 급증하여, 왕조가 교체되던 당시(1392)에는 30%를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 인구가 급증한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유교가 한국 사회에 소개되고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된 것은 1894년인데, 이때 유교 지식을 토대로 관리를 선발하던 과거시험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특히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유교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유학자들인데, 조선 건국 후에도 노비 인구는 대체로 30%를 유지하였으며, 노비제도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이런 점들은 노비제도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해한 유교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교의 확산이 노비제도의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조선의 유학자들은 노비제도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들은 노비제도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중의 하나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명분’이었다. 현대 한국어에서 ‘명분’은 대개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계의 뜻으로 쓰이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명분은 ‘사회계층 사이의 구분’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 곧 명분의 뜻이었다. 실제로, 유학자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평등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비제도는 당연하며,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물건처럼 다루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이런 유학자들이 세운 조선사회에서 노비제도가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노비 인구도 대체로 전체 인구의 30% 선을 유지한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적어도 위선이 아니다. 다른 말로, 유학자들은 그러한 명분을 자연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노비제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노비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경우에 그 자식의 귀속 문제를 놓고 유학자들은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하였다. 본래 유교적 가치에 따르면, 사람의 출신과 신분은 부계를 따르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노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노비소유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따랐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 노비의 출산은 정식 결혼에 의한 출산뿐만 아니라 단순한 성행위에 따른 출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어려웠고, 이때 산모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노비라고 말할 리 없겠기 때문이다. 자기 아이를 노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산모는 결코 아버지를 밝히지 않거나 어떤 평민 남자를

아버지라고 증언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부계 원칙을 노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노비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유한 노비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의 경우를 예외로 취급하여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을 만듦으로써 유교의 원칙을 저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평민 여자와 노비 남자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농민의 경우에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을 노비와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노비 주인이 동네의 가난한 농민의 딸들을 자기 남자 노비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립된 법이 바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된다는 법이었다. 이 법이 시행된 결과, 노비의 수는 급증하였고, 이렇게 증가한 노비 인구는 18세기가 저물도록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극소수이지만, 몇몇 양심적인 유학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유교의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당시 사회분위기에 아무런 영향조차 주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노비 인구는 18세기를 고비로 줄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도 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허덕였는데,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노비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노비는 본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비는 국가에 대한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없었다. 그런 노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인구비율이 감소하는 꼴이었다. 따라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의 왜란, 호란 등으로 인한 국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아예 해방시키고 그 대신 세금을 걷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후기(17~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상업이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자, 18세기에 이르면 주인집에서 도주하여 다른 곳에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하는 노비의 숫자도 증가하였다. 이런 새로운 경제적 여건에서, 많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여 도주한 노비를 찾는 대신에 차라리 낮은 임금을 주고 주변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추세가 점차 강해졌다. 이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비의 수는 줄어들다가 1894년에 마침내 법적으로 노비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노비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어느 특정 사회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존재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경우 그러한 필요를 이념적으로 튼튼하게 받쳐준 것이 바로 유교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사회의 유교는 인간평등 사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향하였고, 유교 이념으로 포장된 위계적인 사회분위기는 아직도 한국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고려시대에는 노비들의 반란이 많았습니다. 영어판 말미에 제시한 격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록 노비일지라도 무예가 출중하다거나 권력가의 총애를 받으면 노비의 굴레를 벗고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고려의 기본 제도가 많이 붕괴된 무신정권(1170~1270)과 몽골간섭(1270~1351)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지만, 그래도 이러한 점은 고려의 노비제도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줍니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노비들의 반란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층민의 반란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이점은 조선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한

유학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노비들을 법적으로·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지배층인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였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역사학자들은 노비제도가 이렇게 오래도록 한국 사회에 존속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것이 한국사회의 낙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비는 서양의 유사한 제도들을 고려했을 때, 물건과 다름없이 매매되거나 세습되었던 노예(slave)라기보다는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구속된 농노(serf)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만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나 농노와도 다른 성격들을 갖고 있으니, 차라리 ‘노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nobi’라고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일본 단어 ‘사무라이’를 서양의 ‘기사’(knight)로 굳이 번역하지 말고, 그냥 ‘samurai’로 표기하며 원래 의미를 살려 두는 것과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당신은 ‘노예’(slave)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2) 노예가 나오는 영화를 본 것으로 무엇이 기억납니까? 영화에서 본 그 노예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3) 요즘에는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노예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 패턴 내지는 사회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만 자유인일 뿐이지, 사실은 어디엔가 강하게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 흔히 ‘사랑의 노예’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노예’입니까? 이때 노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은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이외에 또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런 상태를 과연 사랑의 ‘노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3. 16세기의 사림 운동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약 100년이 지난 16세기의 문턱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당시에 대개 사림(士林)으로 불렸는데, 이는 ‘유학자들’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 무대에서 기존의 관료들과 여러 면에서 마찰을 빚었고, 급기야 몇 차례에 걸쳐 숙청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결국에는 사림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림’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림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의 첫 100년을 제외하고는 이 사림이라 불리는 유학자들이 조선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한국의 전통 문화로 알고 있는 풍습이나 제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은 사림이 주도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차별한다거나, 여자의 이혼이나 재혼을 나쁘게 본다거나, 가족 구조가 민주적 원리보다는 상하 위계질서에 기초하는 ‘한국적’ 특징들은 모두 사림이 주도하던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었다. 요컨대, 사림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들이 지배한 조선이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근무한 곳은 ‘삼사’라고 불리는 관청이었다. 이 삼사는 세 개의 독립 기관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 이곳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임무를 담당하였다. 하나는 법률안에 대하여 서경(endorsement)을 하는 기능으로, 이는 어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삼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왕이 이미 재가한 법안일지라도 삼사에서 서경을 거부하면 그 법안은 무효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왕이 자신의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조선사회에서는 삼사의 서경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 다른 하나는 왕에게 간쟁(remonstrance)하는 기능으로, 이는 왕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판단될 때 왕에게 나아가 직접 왕을 비판하면서 유교적 원칙에 따라 정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왕은 자기를 면전에서 비판하는 삼사의 관리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또 다른 하나는 관리들을 탄핵(impeachment)하는 기능으로, 관리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행이나 도덕적 결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탄핵할 수 있었다. 조선의 왕들이 과거시험을 통과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삼사에 임명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조선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정치적 변동을 많이 겪었다. 조선왕조의 첫 120년 동안 열 한명의 왕이 즉위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려 네 명이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났으며, 그 중에서 두 명의 왕은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기거나 의문사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 왕위에 오른 새 왕은 자기를 지지한 자들에게 공신 칭호를 주고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조선 초기의 정치적 실권은 대개 이 공신 집단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변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즉위한 왕들은 공신들을 상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삼사의 관리들로 하여금 공신들을 탄핵하도록 조장한 면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유교적 원칙에 비교적 철저하였던 젊은 사림을 주로 삼사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삼사의 관리들은 공신들만 탄핵하지 않고, 왕에 대해서도 비판과 간쟁을 서슴지 않았다. 사림의 기준은 유교 원칙의 공정한 적용이었으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가차

없이 비판의 칼을 빼어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 무대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고, 어떤 사소한 일도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를 늘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림들이 대거 숙청당하곤 하였다. 영어판 본문에 이런 숙청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15세기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16세기 중반에 이르도록 조선의 정국은 사림의 목소리가 커진 것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컸기에, 이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뒤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림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면서 끝내 정치권력을 사림이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림의 등장은 유교화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건국하면서 유교를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천명하였으며, 유교 지식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시험 제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시험 준비에 전력을 쏟았다. 그들이 매일 밤낮으로 공부한 내용은 유교적 우주관과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였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학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유교적 기준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조카를 죽이거나, 형 또는 아버지를 내쫓는 일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였다. 유교의 큰 덕목 가운데 하나인 왕에 대한 충성도 책 안에서만 유효하였을 뿐, 실제로는 신하들에게 폐위당한 왕이 네 명이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부 유학자와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타락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정치 무대에서 정치 개혁을 외쳤으니, 이들이 바로 사림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사림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교적 가치를 현실 정치 무대에서도 타협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였던 사람들, 다른 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림도 비록 기존의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정치 성향은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림이 이후 300년 이상 철저하게 지배한 조선사회의 모습이 보다 유교적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사림은 비록 어떤 정치 그룹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어떤 면으로는 사림을 하나의 개혁 운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6세기 후반에 이들이 중앙관료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반목과 정쟁을 경험하면서 권력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림의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조선사회의 모든 양반 지식인들이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어느덧 사림이 되었던 것이고, 조선사회는 바로 이런 사림 지식인(유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성격이 결정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영어판 본문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조광조(1482~1519)라는 인물을 인터넷에서 찾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조광조는 사림의 표상으로까지 불리는 인물로, 38세의 나이로 숙청당해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6세기 후반에 복권되어 조선왕조 내내 전형적인 유학자이자 정치적 개혁가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늘 민주주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만약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침묵하며 순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겠습니까?

(2) 학교에서 배운 가치와 실제 현실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다만 다양성이 있을 뿐이다” 고 배웠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어느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슷한 다른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14. 임진왜란(1592~1598)과 그 여파

조선왕조는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나면서 큰 전란을 두 차례 겪었다. 하나는 남쪽에서 일본이 침입한 것(임진왜란)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청나라(만주족)가 침입한 것(정묘호란,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이 조선왕조의 물질적 기반(하드웨어)을 황폐화시켰다면, 병자호란은 정신적 기반(소프트웨어)을 뒤흔들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임진왜란(1592~1598)을 살펴되, 전쟁 과정은 이미 영어판 본문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상술할 필요는 없겠다. 대신, 전쟁이 조선사회에 남긴 후유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7년에 걸친 전쟁은 조선의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수도인 서울은 일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본군에게 점령당해 있었으며, 그 외의 도시들도 대개 일본군에게 점령된 바 있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일본군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었다. 7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 인구는 약 100만 명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이전에 조선의 인구가 약 800만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만을 넘지 못했음을 고려한다면, 인구 열 명 당 한 명 이상 사라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니, 바로 국가 수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대부분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토지대장·노비대장·호구대장 등의 주요 문서들이 대거 사라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나 토지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조선왕조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 무려 100년이 소요될 정도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물리적 타격은 심대하였다.

반면에 토지를 보유한 양반 지주들은 오히려 토지와 농민에 대한 사적(私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전쟁 중에는 의병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고, 전쟁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토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피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전쟁으로 문란해진 사회질서를 유교적 질서로 다시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갖가지 향규들, 즉 향약(community compacts)을 만들어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변화 중에는 명나라의 내정 간섭도 있었다. 이미 7장에서 공부하였듯이, 중국의 제국과 한반도의 왕국은 대개 책봉·조공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조선시대 때 중국에 있던 제국이 명나라였으므로, 조선의 왕은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대신 책봉을 받곤 하였다. 그렇지만 명나라의 내정 간섭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명나라가 군사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내정간섭은 심화되었고, 이런 상황은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 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참전을 계기로 명나라는 조선을 명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계속 잡아두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선의 왕과 관료들이 명나라의 내정간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 중에 명나라 군대의 활약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하고, 심지어 명나라를 조선의 부모의 나라라고까지 추켜세우며 선전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왕실 및 중앙정부의 권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계기로 왕실의 권위는 현저하게 떨어졌고, 중앙정부도 권위를 잃었다. 그것은 전쟁이 발발하자 왕과 관료들이 일본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서울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신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전쟁 중에 일본군과 끝까지 싸운 주요 세력은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수군과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의병들이었다. 또한 뒤늦게 참전한 명나라 군대도 전황을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런 상황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왕과 중앙정부의 큰 부담으로 남았다. “누구 덕분에 일본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지킬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전쟁 후에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순신의 수군과 각처의 의병이 조선을 구하였다고 말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왕과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비난이 뒤를 이을 것이었다. 이런 비난은 왕조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반면에, 조선을 지켜낸 세력이 명나라 군대였다면, 그 명나라 군대가 전쟁에 참전하도록 적극 힘을 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바로 중앙정부의 왕과 고위 관료들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권위가 땅에 떨어진 왕과 관료들은 “조선을 구해준 것은 명나라”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명나라 군대의 활약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선전하고 명나라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권위의 실추로 인한 정치력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에, 수많은 의병장들은 중앙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고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견제를 받았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들의 존재가 중앙정부 또는 왕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이순신이 한때 파면되어 감옥에 갇힌 배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조선정부는 명나라를 칭송하고, 심지어 명나라 황제를 일컬어 조선 백성들을 구해준 은인이라고까지 선전하였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정치선전은 전체 양반사회에 매우 빠르게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나라를 바라보는 조선 양반 지식인들의 생각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명나라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익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의 이런 사회분위기는 마치 한국전쟁(1950~1953) 이후에 한국 사회에 두루 퍼진 ‘혈맹’으로서의 미국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전황 이야기는 영어판 본문에 있는 설명을 토대로 하되, 이미 미국 내 한글학교에도 자료가 많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면 무난할 것입니다.(2) 약 7년에 걸친 전쟁 기간 중 약 4년 동안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휴전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협상의 당사자는 명나라와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계기로 조선이 마치 명나라의 실질적인 속국과도 같은 지위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한국전쟁(1950~53) 중 휴전협정을 할 때에도 협정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유엔군과 북한·중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휴전을 하려는 협정 당사자들과는 달리, 조선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휴전을 반대하고 전쟁을 외친 점도 서로 같습니다. 이런 점도 고등학생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이순신 중심으로 짜인 임진왜란 이야기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한 이순신(Yi Sunsin, Yi Sun-sin)과 거북선(kobukson, geobukseon, turtle ships)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영어로 된 관련 자료와 사진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말해 봅시다.

15. 병자호란(1636~1637)과 그 여파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채 안 되어 조선은 또 다른 전란을 겪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부터 만주족이 두 차례 침입하였다(정묘호란, 병자호란). 특히 두 번째 침입인 병자호란 때에 조선의 왕은 만주족 황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국가의 물질적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면, 병자호란은 조선왕조의 정신적 기반을 뿌리 채 뒤흔드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반 지배층이 선택한 타개 방법은 조선후기(17~19세기)사회의 성격을 사실상 규정해 버릴 정도로 한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병자호란과 그 여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1630년대에 정치적으로 탄생하였다. 본래 만주 일대에 살던 토착민은 주로 여진족이었는데, 조선전기 때만 해도 그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조선과 명나라와 교역하며 가끔 직첩이나 녹봉도 받으며 살았다. 한 예로, 후에 만주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누르하치(1559~1626)의 선조들은 모두 15세기까지만 해도 조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직첩을 받곤 하였다.

누르하치는 여진 부족들을 통합한 후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고, 1621년에 요동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조선과 명의 육상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명과 후금의 전쟁 와중에 명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r.1608~1623)은 이 전쟁에서 후금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군대의 파견에 반대하였지만, 조정 중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조선군을 파견하여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명·조선의 연합군은 후금에게 참패하여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이후 광해군은 친후금 정책을 보다 분명히 하였으나, 계속하여 친명정책을 주장하던 신하들이 1623년 일으킨 쿠데타(계해정변, 인조반정)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외교노선은 친명·반후금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후금의 침입을 초래하였다. 1627년에 후금이 예고도 없이 침입하자, 당황한 조선 정부는 서둘러 후금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였다. 후금도 조선을 당장 힘으로 정복하기보다는 장차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금의 후방에 위치한 조선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의 침입이었으므로, 화평 교섭은 쉽게 이루어졌다. 후금이 조선에 제시한 요구 조건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고,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다. 조선으로서는 일단 후금의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이후 후금이 조선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조선은 조선대로 명과 계속하여 외교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양국 사이에는 늘 불안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러던 중 1630년대에 들어서며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청 휘하에 속한 모든 민족들, 이를테면 여진족뿐만 아니라 요동에 살다가 후금에 항복한 한족(문화적으로 중국인), 후금에 투항한 일부 몽골, 후금에 합류한 일부 조선인, 그 밖의 수많은 민족들을 한데 묶어 만주족이라 새롭게 칭하고, 후금의 군주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기존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도록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본래부터 여진족을 오랑캐라 부르며 천시하던 조선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무례하다고 하여 전쟁 불사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만주족이 다시 조선을 침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1636~1637)이었다.

조선은 국경 일대에 산성을 쌓는 등 전쟁 준비를 하였으나, 만주족 기병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만주 군대는 압록을 건넌 지 불과 닷새 만에 서울에

도달할 정도로 순식간에 남하하여 서울을 점령하였다. 왕과 신하들은 황급히 근처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였으나,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채 고립되었다. 결국 조선의 왕은 성문을 열고 산을 내려와 무조건 항복하였다. 조선은 명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청나라 황제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동안 명나라에서 받았던 책봉 관련 문서와 인장들을 모두 청나라 황제에게 내주었다.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황제를 새로운 천자로 섬길 것을 맹세하였고, 조선의 두 왕자와 여러 중신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큰 수치를 당하였다. 이러한 대가로 조선이 청으로부터 얻은 것은 조선 땅을 청나라에 병합시키지 않고 왕조를 유지시켜 준다는 약속이었다.

조선의 항복은 조선왕조의 정신적 기반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지배 이념은 유교였고, 유교 이념의 핵심은 충·효였다. 그런데 기존의 명·조선 관계는 군신관계만이 아니라 부자관계로도 설정되어 있었다. 다른 말로, 명 황제는 조선 왕의 군부(君父)로, 조선 왕의 충(忠)의 대상이자 동시에 효(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주족의 침입을 맞아 그만 조선 왕이 그 앞에 나아가 기존의 군부(명나라)를 저버리고 청나라 황제를 새로운 천자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일은 조선의 왕과 조정 신료들 스스로 유교의 기본 덕목인 충·효를 스스로 범한 꼴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왕조에게는 크나큰 이념적 위기였다. 왜냐하면 조선의 항복은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로 합리화될 수 없는 성격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변명이 가능하다면, 유교 이념의 두 핵심인 충·효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농민이나 노비도 양반지주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갖가지 상황적인 핑계를 대어 충성을 기피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의 양반 지배층이 선택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유교적 윤리를 더욱 더 강조하여 교조적으로 율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고립정책을 펴는 것이었다. 즉 청나라 황제에게는 필요한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치되, 그것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내부적으로는 유교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가치를 범한 자신들의 과오를 상쇄하고 내부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중반까지 200여 년 동안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었다. 조선 내부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조선만이 오랑캐(야만족 barbarians)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은 유일한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이 양반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어, 모든 외국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팽배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17~19세기는 세계 역사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조선은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잃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갔다. 이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미 근대화를 이룩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에 밀려들어올 때 조선은 이렇다 할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만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병자호란 및 그 여파가 한국 문명사에서 갖는 중요성은 바로 이점에 있다. 물론 조선의 몰락 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으나, 병자호란의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양반 지배층이 취했던 정치적·문화적 고립정책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세계 역사에서 볼 때, 타인의 지배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자아)을 지키는 가장

손쉽게도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종교적(의례적) 율법들을 더욱 교조화하여 고수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 유대왕국이 망한 후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자들(지식인)이 강요한 지나치게 교조적인 율법 체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바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제국 치하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조선후기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는 비록 ‘더러운’ 오랑캐에게 굴복했으나 조선인의 정체성만큼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유교적 가치에 기초한 갖가지 법들을 만들어 강제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서 유대인 못지않게 존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은 이런 역사적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현대 한국인의 성격 중에서 위에 제시한 바리새인의 성격과 흡사한 면이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2)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골자는 무엇이며, 조선후기의 국가정책과 유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16. 한국의 유교화와 여성의 지위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매우 중요한 가치 기준이었지만, 17세기에 접어들도록 일상생활만큼은 유교화 이전의 전통적 관습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사회와 조선후기(17~19세기)사회를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사회를 볼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를 지나면서 한국사회가 일상생활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유교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유교화' 주제를 다루되, 특히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화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제도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일부다처제에서 일부일처제로의 변화일 것이다. 고려는 일부다처제 사회였는데, 귀족 남성은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정식 아내를 동시에 네 명까지 둘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일부일처제를 시행하여 단 한 명의 아내만을 법률상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이미 둘 이상의 부인이 있는 경우에, 누가 정식 부인으로 간주되는지를 놓고 소송이 잇달았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양반집 딸들은 이미 부인이 있는 남자와의 혼인을 꺼렸다.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첩으로 분류되어 큰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로 거의 모든 첩은 양반이 아닌 하층민, 이를테면 평민, 노비, 또는 서얼(즉 첩의 자식)에서 충당되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서얼에 대한 신분적 차별로 이어졌다. 고려사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첩과 서얼 문제가 조선사회에 들어서면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정식 부인의 소생 중에서도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유교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고려사회에서는 자녀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장자를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딸을 차별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딸도 다른 형제와 동등한 상속권을 누렸다. 가계 계승에 있어서도, 계승권이 반드시 장자에게 가는 것은 아니었다. 또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자도 계승이 가능하였고, 사위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들어서며 유교의 영향으로 서얼과 딸에 대한 차별 대우 시작되었고, 조선후기에 와서는 아들 중에서도 특히 적장자를 우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고착된 또 다른 관습은 근친혼의 금지다. 고려시대의 한국 혼인 양식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사촌이나 남매간에도 결혼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예는 부지기수다. 그런가 하며, 법으로는 비록 금지되었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의 혼인 사례도 있다. 조선사회에서는 이 모든 근친혼을 강력히 금지하였는데, 그 도가 지나쳐 결과적으로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은 물론이고, 성만 같아도 혼인 금지가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즉 본관에 상관없이 성씨만 같으면 같은 친족 구성원으로 보아 무조건 혼인을 금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김·이·박·최·정씨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동성혼인금지법은 단순히 근친혼 금지 차원을 넘어 매우 넓은 범주의 사람들을 혼인하지 못하도록 묶는 악법이 되었다. 이런 관습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유지되어 오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폐지되었다.

비록 남성과 동등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여성은 조선시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차별받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이혼을 하고 또 재혼할 수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얼굴과 몸을 가리는 따위의 규제도 거의 없었다.

결혼식은 전통적으로 신부의 집에서 열렸다. 유교화가 진전되면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혼식 장소만큼은 끝까지 신부 집이었다. 유교화에 맞서서 고유의 전통을 고수한 대표적인 한국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혼식 장소다. 신혼부부가 첫 신혼살림을 차리는 장소도 역시 신부 집이었다. 이를 처가거주제(妻家居住制 uxorilocal residence rule)라고 하는데, 얼마 후에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도 없었으므로, 심지어 죽을 때까지 신부 집에서 (남편의 입장이라면 처가에서) 사는 부부도 있었다. 즉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남자가 장가가는 사회였던 것이다. 다만 일부다처제이면서 처가 거주 형태가 일반화되다 보니, 방문남편(visiting husband)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둘째 부인을 얻을 경우에, 첫째 부인 집을 나와 새 부인 집으로 들어가 사는 식으로, 남편이 부인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일부일처제 사회였으므로 방문 남편의 모습은 사라졌다.

어쨌든 이러한 혼인 풍습과 신혼살림 형태에서는 자연적으로 거의 모든 자녀는 외가에서 태어났고 외가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위인전을 읽을 때 흔히 “아무개는 외가에서 태어나 몇 살까지 외가에서 성장하고”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풍습 때문이었다. 이런 유풍은 지금도 남아 있다. 지금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부부들은 공항에 내리면 바로 신부의 부모님 집으로 향한다. 거기서 최소한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비로소 신혼살림을 차릴 보금자리로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화가 본격화 된 조선후기에는 비록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올릴지라도 신부네 집에 머무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바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관습이 일반화되었다. 즉 이제는 남자는 장가가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여자가 시집가는 사회로 바뀐 것이다. 한국말 표현에 장가간다는 말과 시집간다는 말이 아직도 공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두 가지 풍습이 뒤섞인 채 현대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교화로 인한 변화는 이 밖에도 많지만,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유교화의 영향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장자 우대 상속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유교라는 이념적 요인 외에도 인구 증가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토지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자녀에게 균분상속을 하더라도 그 집안이 가난해지지 않았으나, 하반도 안의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분상속을 계속 하면 할수록 후손들은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첩이 낳은 서열이 먼저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정실부인의 딸이, 또 아들(적자)이라도 장남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관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여전히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장자상속제’(primogeniture) 보다는 ‘장자우대상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장자상속제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장가가다’와 ‘시집가다’에서 ‘장가’와 ‘시집’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는 왜 이런 표현들이 생겼을까요?

(2) 미국의 결혼식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풍습과도 서로 비교해 봅시다.

[표] 사회관습을 통해 본 한국의 유교화 과정

구분	고려(10~14세기)	조선전기(15~17세기)	조선후기(18~19세기)
부계·모계 관계 (중국은 부계)	둘 다 중요.	둘 다 중요.	둘 다 중요.
상속	자녀 균분.	자녀 균분.	장자 우대, 불평등.
호주신분 계승권	아무 아들이나. 무자(無子)면 사위도.	장자 선호하면서도 아무 아들이나. 적자가 없으면 서얼이.서얼도 없으면 외손이.	장자 가 독점적으로. 적자가 없으면 입양함. 외손도 거의 제외.
입양	거의 없음.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무시할 정도	보편화. 서얼과 사위는 다 제외.
제사	사당 거의 없음.	사당 짓기 장려.여성도 참여.서얼도 제사권 유지.	여성·서얼 배제.
족보 작성법	현존 족보 없음	자녀, 사위, 외손도 기재.	부계(친계) 위주.
결혼풍습	일부다처. 족내혼·족외혼.	일부일처. 족외혼.	일부일처. 족외혼.
여성의 이혼	문제없음.	약간 문제.	사실상 불가능.
여성의 재혼	비일비재. 아무런 제약 없음.	점차 감소. 경국대전 상 불이익.양반가에서 수치로 여김.	사실상 불가능. 법적·사회적 제약 및 차별.
여성의 옷차림	제한 없음.	제한 부과되기 시작.	제한 매우 심함.
결혼식 장소	신부 집.	신부 집.	신부 집.
신혼살림 장소	신부 집. 장가드는 사회.	신부 집. 장가드는 사회.	신랑 집 (신부 집 3개월 이내). 시집가는 사회.
여성의 정체성 (가족 소속감)	친정.	친정.	시집.
성장 환경	외가.	외가.	친가.
‘열녀’ 개념	무관심.	미약함.	강조됨.

* 이상은 대체로 양반가 및 중인(中人)가의 상황이고, 평민, 천민 가족의 유교화는 훨씬 느렸다.

* 18세기까지만 해도 평민이하의 경우 여성 호주도 가능하였다.

17. 유교 근본주의와 실학

조선후기(17~19세기)의 한국은 앞 시기,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보다 교조적인 유교가 지배한 사회였다. 여기서 유교라 함은 구체적으로 주자학(성리학 또는 신유학이라고도 일컬어짐)을 가리키는데, 주희(Zhu Xi, 1130~1200)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의 이론과 해석을 최대한 그대로 신봉하고자 했던 유학의 학파를 가리켜 주자학이라 한다. 여기서 주자학의 철학적 특성을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으나, 조선후기에 유행한 주자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통과 이단으로 양분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것을 물리적으로도 탄압했다는 특징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예의범절이 하나의 에티켓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이렇듯 정통이나 이단이나 하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강조한 주자학의 영향 탓도 있다. 이런 특성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으니, 우리편과 상대편만 있지 중도세력이나 중간지대가 별로 없고, 또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문제해결 의식이 약한 한국 정치와 사회의 특성은 이런 데에서도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수많은 양반지식인들이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배경에도 이렇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여 처절하게 싸운 상황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권력을 거의 독점한 봉당(political faction)은 노론이었다. 노론이 아닌 다른 봉당들, 이를테면 북인, 남인, 소론 소속 가문들은 점차 권력에서 도태되어 신분상으로만 양반으로 남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는 자연히 현실정치에 불만을 갖거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주자와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동시에, 겉으로는 예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선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양반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또한 마침 청나라를 통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서학, 특히 천주학을 받아들여 공부하고 스스로 천주교로 개종하는 유학자들도 생겨났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 즉 정통 주자학 및 그에 기초한 양반문화 전반에 걸친 비판을 흔히 ‘실학’으로 부르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런 실학의 분위기 중에서도 예술계의 동향을 그림 감상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그 밖의 철학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비판 내용은 영어판 본문을 참고하면 충분할 것이다.

먼저 <빨래터>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자. 이것은 신윤복이라는 중인(中人) 신분 화가가 18세기 후반에 그린 작품인데,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감고 빨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 젊은 여인이 젓가슴을 드러내 놓고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젊은 양반이 그것을 훑쳐보고 있는 상황이다. 양반은 늘 도덕적 수양을 쌓되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양반은 백주의 빨래터에서 여성의 젓가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주자학적 규범에 의하면, 이 양반은 오히려 시선을 자기 왼편으로 돌려서 여인들을 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쳐야 했다. 그런데 이 양반의 두 발을 보면 걸고 있기는커녕 아예 그 자리에서 서서 여인을 감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윤복이 이 그림을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하나의 훌륭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과부의 봄(Widow's Spring)이라는 그림을 보자.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은 과부고, 그 옆의 여인은 옷차림으로 보아 과부의 여종인 듯하다. 또한 그들이 있는 마당과 그 마당을 둘러싼 담장을 볼 때, 그림 속의 장소는 지체 높은

양반가의 뒤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인기척도 별로 없는 이 뒤뜰에서 지금 과부는 여종과 함께 무엇인가 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개구멍을 통해 마당에 들어와 서로 교미하고 있는 암수 두 마리의 개다. 그렇다면 신윤복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양반 집안에서 여인의 재혼이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가문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봄날 마당에서 서로 교미하는 개들을 바라보는 저 젊은 과부를 통해 신윤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 다음 그림은 달빛 아래 밀회(Clandestine Meeting under the Moonlight)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음화를 제외하고는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는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고려시대에는 남녀의 연애가 자유분방하였다. 그만큼 이혼과 재혼도 빈번하였다. 고려를 방문한 어떤 중국 사신이 고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성과 사귀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고려사회에서의 이성 교제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조선후기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유교적 윤리관이 철저히 통제된 사회(적어도 양반의 경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흔히 얘기하는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은 “남녀가 7살이 되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남녀의 구별을 철저히 한다는 뜻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신윤복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을까?

이렇듯 단순한 그림 하나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한편으로, 조선후기사회는 숨 막히는 사회였다. 인간의 본능과 자유로운 생각들이 유교적 율법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조선후기사회에서도 인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교조적 주자학이 정통으로 군림하면서 다른 학문을 탄압하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은 거의 전 사회 분야에 걸쳐, 심지어 미술 작품에서도 힘차게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문학작품으로는 박지원이 쓴 ‘양반전’과 ‘허생전’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그 의미를 풀이해 주어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들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혹 영어로 번역한 버전을 원하신다면, Yongho Choe, et al., *Sources of Korean Tradition*, vol.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춘향전’도 비슷한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영어판 본문에 나오는 Northern Learning School은 한국말로로는 북학과입니다. 말 그대로 북쪽 나라로부터 배우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북쪽은 청나라입니다. 이 북학파가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런 주장은 왜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연결될까요?

18. 조선의 경제 발전과 상인 계층

세계 역사에서 18세기는 큰 변화의 시기였다. 유럽의 경우에, 계몽주의사상이 유행하여 기존의 정치구조와 이념에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조선사회도 나름대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비록 유교 근본주의자들이 여전히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앞 장에서 살폈듯이 ‘실학’이라는 새로운 움직임도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일고 있었다.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상업과 수공업이 보다 활발해졌으며, 그에 따라 화폐의 유통도 비교적 활발하였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조선은 여전히 토지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 사회였다. 그렇다면 18세기에 일었던 사회경제적 변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또한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살피려고 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농업생산력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천연비료의 사용, 논농사의 확대, 휴경지의 감소, 모내기법의 보급 등이 생산력 향상의 동력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생산력에는 못 미쳐, 농지 면적 당 생산력이 대략 80%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차이는 기후와 토질과 농법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전기에 비하면 큰 성장이었고, 이러한 생산력 증대는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여, 18세기에 이르면 조선의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많게는 1,500만까지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본래 유교적 가치를 중시한 조선왕조에서는 일관되게 상업을 억제하였다. 상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상(私商, private merchants)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때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의 활동은 더욱 커져 물리적 힘만으로는 누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18세기 후반에 정부에서는 아예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행위를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상업 정책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

서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지방에도 영향을 미쳐,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대거 등장하였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오일장의 수는 전국에 걸쳐 대략 1,000개를 넘었다.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를 대략 1,200만으로 잡는다면, 대략 인구 12,000명에 하나 꼴로 시장이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비율은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시장 하나당 인구 숫자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계량적 통계는 조선후기의 상업과 그로 인한 시장경제의 발달 정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화폐의 유통도 활발해졌다. 그렇다면 조선은 18세기부터 화폐경제 사회로 진입하였을까? 상업 활동을 억제한 유교사회 조선에서 17세기 이전까지는 화폐의 유통이 매우 미미하였다. 주요 결제 수단은 대개 쌀이나 포목이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도 화폐로 걷지 않고 쌀과 포목 등의 현물로 걷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걸쳐 은이 화폐처럼 유통되기는 하였으나, 주요 결제 수단은 여전히 쌀과 포목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업의 발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주조하였고, 이는 곧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는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단위는 모두 1냥짜리였고 고액 화폐가 없는 탓에, 이 상평통보 역시 주로 보조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주요 결재 수단으로는 쌀과 포목이 여전히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세금도 화폐보다는 현물로 내는 것이 여전히 대세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 관리들은 화폐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시중에 화폐가 갑자기 부족해지거나 넘치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이 아직 화폐경제 단계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전기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이 있었으나, 조선사회는 여전히 토지에 기반을 둔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상업의 발달은 당시 서양이나 일본과 같이 막강한 상인계층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을까? 조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18세기 조선에도 큰돈을 번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상업의 활성화로 인해 상인들도 이전보다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무대에서 상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조선이 철저한 신분제사회였다는 점 외에도, 조선의 상인들이 진정한 양반들로부터 동류로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권력과 무관한 관품이나 관직이나마 얻을 수 있는 길이 늘 열려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제한적이지만 제도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하층민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돈을 번 후에는 상인 ‘계층’을 형성하지 않고 양반 흉내를 냈다. 박지원의 소설인 ‘양반전’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조선후기에 상인들은 많았지만, 그것이 곧 상인 ‘계층’의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유학자들은 직업에 귀천을 두어 차별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농·공·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조선사회의 신분집단이 실제로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이런 가치 기준 언제나 유효하였고, 그것은 유학자들의 경제관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산’을 하면 선(good),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악(evil)이라고 보았습니다. 유학자들이 보기에, 상인은 정작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고 남들이 만든 물건을 그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많은 이윤을 취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량은 일정한데 상인들이 이리저리 물건을 옮기면서 이윤을 취하면, 그 이득을 취한 만큼 어떤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는 식의 경제관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교적 경제관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급격한 상업 발달이나 산업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모내기’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 모내기가 한국의 농업생산, 특히 쌀 생산에 가시적인 기여를 시작한 시기는 대개 20세기 전반 무렵입니다. 조선후기에는 그저 모내기법이 소개된 정도였습니다.) (2) 조선사회에서 상인 ‘계층’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조선사회의 낙후성을 말합니까? 아니면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특수성을 보여줍니까?

19. 세금과 병역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세금을 내었을까?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갔을까? 조선왕조의 기반이 잡힌 16세기부터 양반들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 외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병역의 의무도 없었다. 이 모든 부담은 일반 평민들이 담당하였다. 당신이 만약 조선사회에서 농민으로 살았다면, 당신은 밭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바치고 군대에도 가야 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세금 중에서는 ‘대동법’을, 병역 중에서는 ‘군포’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제도들이 궁극적으로 조선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조선후기에 농민들이 부담하던 세금 중에서 부담이 가장 컸던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정부에 바치던 세금을 말한다. 조선은 화폐경제 사회가 아니었으므로, 세금은 대개 현물로 징수하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질 좋은 종이로 유명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당신 지역을 관할하는 수령(district magistrate)에게 일정량의 종이를 세금으로 바칠 것은 명한다. 그러면 그 수령은 배정된 양을 채우기 위해 관할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구를 기준으로 납부할 종이의 양을 배정한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양반 가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오면 양반 가구들은 사실상 세금에서 면제되었고, 거의 모든 공납은 평민들 가구에 배정되었다.

그런데 조선사회에서 대체로 부유한 자는 양반이었고, 가난한 자는 농민이었다. 따라서 공납은 조선사회의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현물로 세금을 바치다 보니, 그 운반과 보관을 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현물들을 통제하고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하여 17세기에 세제를 개혁하였는데, 새로운 법이 곧 대동법이였다.

‘대동’(大同)은 크게 한 가지로 통일한다는 뜻으로,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특산물로 바치던 공납을 편의상 쌀 한 가지로 통일하여 징수한다는 뜻이다. 또한 가구를 기준으로 징수하던 것을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징수하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이었다. 왜냐하면 가구를 기준으로 징수할 때에는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여유가 있는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모두 같은 양의 공납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그에 따라 많은 양의 공납을 내어야 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만약 당신이 토지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채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라면, 당신은 이제 공납의 부담이 없어진 셈이다. 반면에 토지를 많이 보유한 양반지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전까지는 공납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토지에 따른 세금을 쌀로 내야 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조치는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나라의 운용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은 양반지주들의 큰 반발을 샀고, 그 결과 이 대동법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기까지는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였다. 반발이 그만큼 거세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세율도(생산량의 1% 정도) 매우 낮아 지주들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발이 컸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지주가 부담해야 할 대동미(대동법에 의해 징수하는 쌀)를 소작인에게 떠넘기는 일도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한편 조선사회에서는 성인 남자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당시 성인의 기준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양반은 병역에서 제외되었다. 군인으로 출세하고 싶은 양반은 이순신과 같이 무과 시험을 통해 고급 장교로 진출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양반들은 이제 군대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병역의 의무는 모두 평민들 몫이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민신분의 성인 남자라면, 1년에 두 달 동안 군대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었다. 복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정한 양의 경제적 부담을 제공하여 복무 중인 병사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했다. 이렇게 군 복무는 윤번제로 돌아가되,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두 달 정도를 직접 군대에 가서 근무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기를 60세가 될 때까지 매년 반복하는 것이 당시 병역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는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가난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군대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징집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빠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피 방법이었다.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많은 상비군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6세기 후반에는 이런 문제를 아예 양성화하여 합법적으로 징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즉 1년에 포(布) 두 필을 정부에 바치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가 이제는 납세의 의무로 전환된 셈이었다. 이제부터 누구라도 1년에 포 2필을 내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다. 이 새로운 세금을 ‘군포’라고 한다. 군포 한 필의 경제적 가치는 당시 4인 가족의 보통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와 비슷하였다. 이 결과, 농민의 부담은 다소 감소하였고, 국가의 재정은 늘어났다. 그러나 나라를 방위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상비군이 이렇게 없으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동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명나라가 주도하던 국제질서에 책봉·조공관계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왕조의 안녕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왜란, 호란 등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막강한 적군의 침입을 당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이 군포제도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농민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부유한 양반들은 여전히 면제되고, 가난한 농민들이 모든 부담을 짊어졌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가 ‘균역법’이었다. ‘균역’(均役)이란 말 그대로 ‘병역의 부담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는 뜻으로, 본래 취지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 2필을 한 필로 줄이고, 대신 양반들에게 한 필씩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양반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두 필을 한 필로 줄이되, 양반들에게 부담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수입도 그만큼 감소하였고, 양반들은 아무 것도 잃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군사력 어느 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선왕조가 군대를 별로 보유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탈로 야기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작 조선을 지킬 군인들의 수는 많이 잡아도 20,000명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조선후기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대동법과 균역법은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조선왕조의 부흥에 별로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양반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개혁을 추진할 세력은 없었던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내용

(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삼아, 미국의 경우를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사실 미국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아울러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대동법과 균역법은 모두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양반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조선사회의 세금은 거의 모두 직접세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조선왕조는 왜 많은 수의 상비군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2) 대동법과 균역법은 모두 그 준비과정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는데, 누가 반대하였습니까? 왜 반대하였습니까?

(3) 당신이 지금 엄청난 부자라고 가정합니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충당하자는 법안이 제기될 경우에, 당신은 거기에 찬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4) 부유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는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20. 대원군의 정치와 정책 (1863~1873)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첫 근대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188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서양 국가들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만국공법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한국 역사에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 대개 그 이전을 전근대(pre-modern period)라 하고 이후를 근대(modern)라고 구분한다. 이번 장에서는 전근대 한국사의 마지막 주제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하여 알아보되, 그 개혁의 취지 및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들을 거시적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전근대의 막바지에 조선에서는 꽤 의미 있는 내부 개혁 움직임이 있었으니,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었다. 대원군은 어느 왕족의 봉군호(封君號)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대개 조카 세대에서 후계자를 선택하였는데, 이때 그 새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대원군’이란 칭호를 주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 말하는 대원군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1863년에 조선의 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12세의 소년이 왕으로 지명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흥선군 이하응(1820~1828)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그의 칭호(봉군호)는 ‘군’에서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흥선대원군이 되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원군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므로, 보통 줄여서 ‘대원군’이라고 칭한다. 이 대원군은 왕의 나이가 어린 탓에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평소에 자기가 품었던 생각들을 개혁으로 추진하였다. 그 골자는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쇠락해가는 조선왕조를 부흥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동시대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강조한 쇄신 운동의 성격이 짙었다.

대원군의 개혁은 크게 국내 문제와 대외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개혁부터 살펴보자. 대원군은 먼저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대장에서 누락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들을 적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방의 지주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토지를 새롭게 등록시킴으로써 어느 정도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원군은 또한 가난한 농민들이 국가에 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하였다. 당시 가난한 농민들은 연명을 위해 정부로부터 곡식을 꾸어 먹었는데, 흉년이 계속되면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원군은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기존의 모든 빚을 무효 처리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보다 획기적인 개혁은 병역을 면제받는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군포를 양반들에게도 부과한 것이다. 즉 예전에 양반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던 균역법을 이제야 성공시킨 셈이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었다. 대원군은 양반들의 힘을 누르기 위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바로 양반들이 지방에 세운 수많은 사립학교, 즉 서원들을 강제로 철폐한 것이다. 당시 폐쇄된 서원의 수는 학자들마다 의견에 차이는 있으나 대개 최소 600여 개에서 많게는 천 개를 넘어, 불과 50개 정도의 학교만 살아남았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보다는 양반 집단의 사적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상당한 경제기반도 가진 서원들을 철폐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이러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양반들의 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대원군 자신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사업도 추진하였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法宮 main palace)이었는데, 임진왜란 중에 서울의 노비들에 의하여 불타 붕괴된 후 대원군 때까지 무려 250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국가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 중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년 간의 세도정치의 와중에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싶었던 대원군에게, 파괴된 채 방치된 경복궁의 모습은 왕조의 큰 수치였다. 이에 그 재건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었다. 이에 대원군은 갖가지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거두었으며,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지닌 당백전을 마구 찍는 바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건설 공사에 농민들을 대거 동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경복궁은 바로 이때 세워진 것이다. 한편, 대외 관계에서 대원군은 고립정책을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흔히 쇄국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쇄국(鎖國)이란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는 뜻이다. 곧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외국과의 교류를 금지시킨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을 추구하게 된 배경은 조선후기 내내 조선의 양반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외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 조선만이 문명국이라는 자기중심적 세계관, 그리고 서양 열강들의 무력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한 중국과 일본을 보면서 느낀 본능적인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고립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양 세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하였으니, 영어판 본문에서 설명한 프랑스와의 충돌(병인양요, 1866)과 미국과의 충돌(신미양요, 1871)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물리쳤으나, 조선의 군사력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선 군인들의 엄청난 희생 덕분이었다. 또한 당시 프랑스와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저항이 예상 외로 강하자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원군의 개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동안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개혁으로 제국주의의 물결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이는 대원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0년 가까이 고립정책을 취하여 외부 세계와 스스로 단절되었던 여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원군의 개혁을 지지해 줄 정치 세력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우선 양반들의 반발이 너무 컸으며, 한때 대원군을 지지하였던 농민들도 경복궁 중건 사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등을 돌렸던 것이다. 따라서 아들 고종(r. 1863~1907)이 성인이 되자, 섭정의 명분을 잃은 대원군은 마침내 반대세력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정치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쇄국정책을 보자. 단 쇄국정책 자체보다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선사회의 전체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원군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 쇄국정책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부 개혁에 있어서 그렇게도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하였던 양반 유학자들도 쇄국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대원군을 적극 지지하였다. 따라서 쇄국정책은 대원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조선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이 무조건 개방정책을 펴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쇄국정책이건 개방정책이건 상관없이 당시 서양 제국의 침탈로부터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에 조선의 국력이 너무나 약했다는 뜻이다. 조선이 고립정책을 쓴 17세기 이후 근 300년 가까이 스스로 고립의 길은 걸은 결과, 이웃 나라와의 국력의 차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개항(1876)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이루어졌고, 준비도 안 된 조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 내던져졌던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역사에서 어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흐름 자체를 어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단순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쇄국 문제만 놓고도, 그것을 대원군의 탓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나폴레옹 개인의 힘이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권위체계가 급격히 붕괴된 이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거 군주제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등장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한국 정치를 볼 때에도 이런 시각을 잃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인물 중심으로 흐르는 한국 정치의 이면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프랑스와의 충돌(병인양요)과 미국과의 충돌(신미양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영어판 본문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당시의 조선과 서양의 군복, 무기, 언론보도 등등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서양국가와의 첫 접촉이 전쟁이었던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데, 학생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3)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과 대원군의 개혁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자라는 2세 중고생들에게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 제외하였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런 정책들을 폄을까요? 그것은 대원군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원군이라는 사람을 교육시킨 조선사회의 특성 때문이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2) 미국은 왜 조선에 침입하였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까? 미국 군대는 왜 조선 땅에서 물러났습니까?